

제주, 세계 풍력에너지 컨퍼런스 개막

제8차 세계 풍력에너지 컨퍼런스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6월23일 개막했다.

세계풍력에너지학회(WWEA)와 한국풍력에너지학회(KWEA)의 공동 주최로 국내외 전문가 500여명을 비롯해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당시 의장을 맡았던 라젠드라 파차우리 박사와 아널 케인 세계풍력에너지협회장, 조지 스미더만 캐나다 온타리오주 에너지장관, 손충열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풍력에너지 컨퍼런스는 개회식에 이어 학술회의가 6월25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회의에서는 <섬을 위한 통합, 하이브리드 및 독립형 시스템>과 <해상풍력의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120여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컨벤션센터 3층 로비에는 풍력에너지 연구기관과 국내외 관련기업 40여사가 참여하는 풍력에너지 전시회가 마련됐다.

<화학저널 2009/06/23>